

주암호 '쓰레기와 전쟁'

폭우 뒤끝 나뭇가지·플라스틱 등 상수원 뒤덮어

600m³ 이상 수거...처리 비용도 급증

"이달 말까지 큰 비만 오지 않는다 면 상수원으로 유입된 부유물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을 텐데... 처리비용도 만만찮아 걱정입니다."

19일 오후 2시30분 순천시 송광면 신곡천교 아래 주암댐의 수면은 녹색 초목들이 잔뜩 뒤덮고 있었다. 12일째 부유물질 제거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거대한 '녹색 띠'가 수변(水邊)을 따라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길게 형성돼 있었다.

또 이들 '녹색 띠'는 나뭇가지와 과자봉지, 페트병, 플라스틱 등 각종 쓰레기를 잔뜩 머금고 있었다. 쓰레기 등 각종 부유물들이 최근 쏟아진 폭우로 인해 광주·전남 광역상수원인 주암호를 뒤덮은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5급 부유물 수거선 2대가 양쪽에서 길이 30m의 그물을 저인망식으로 길게 훑고 갔다. 수거선이 지나가자 일대의 물 색깔이 짙은 초록색에서 이내 연한 황빛으로 변했다.

지난 7일부터 200mm 이상의 비가 연일 내리면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전남본부와 주암댐관리단 소속 직원들은 인근 농경지와 임야 등에서 상수원으로 유입된 쓰레기와 '한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날 오후까지 제거된 부유물은 300m³가량. 하지만 아직도 300m³ 이상의 부유물이 상수원 곳곳을 떠다녀고 있다. 2주일째 제거작업을 하고 있지만 비가 연일 내리면서 그 속도는 더디지만 하다. 제거 작업이 늦어지고 많은 양의 부유물이 추가로 유입되면서 처리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수상의 부유물은 1차적으로 부유물 수거선에 실린 뒤 굴삭기에 의해

육상으로 옮겨진다. 이 부유물들은 다시 5t, 15t트럭에 실려 수공 전남본부 부유물 임시 적치장(면적 3천305.8m²)으로 옮겨진다. 이곳에서 부유물은 초목류,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등으로 분류된 뒤 최종 처리된다.

현재 부유물의 1m³당 수상처리비용은 3만원, 육상처리비용은 6만원이 든다. 육상에서 부유물 300m³를 처리할 경우 처리비용은 1천80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수공 전남본부의 부유물 처리예산은 연간 2천만원이며 추가비용이 필요할 땐 예비비 명목의 예산을 긴급 편성, 사용하고 있다.

수공 전남본부는 오는 31일까지 태풍 또는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부유물 제거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이번 비로 부유물이 유입돼 작업량은 늘었지만, 물 걱정은 사라졌다는 게 수공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날 현재 주암댐 저수량은 총 2억 8천100만(저수율 61.6%)이다. 집중폭우가 쏟아지기 전인 지난 6일엔 총 저수량이 6천800만(저수율 14.9%)이었다. 이는 광주시와 나주시, 목포시 등 주민들이 생활 및 농·공업용으로 60일 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수공 전남본부 관계자는 "부유물 제거작업을 이틀 시일 내에 마쳐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목적 댐인 주암댐은 지난 1991년 완공됐다. 댐 길이는 330m, 높이는 57m, 저수량 4억5천700만이다. 광주시와 나주시, 여수시, 순천시 등지에 하루 118만t의 생활 및 농·공업용수를 공급한다.

/순천=이종행기자 golee@



‘쓰레기 호수’ 최근 내린 폭우로 주암댐 곳곳에는 나뭇가지와 과자봉지, 페트병 등 각종 부유 쓰레기들이 휩쓸려 내려와 거대한 막을 형성하고 있다. 19일 화순군 남면 주산1교 아래 모습.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영산강 하류 쓰레기 5천여t 수거

전남도는 지난 7일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 내린 집중호우로 영산강 하류에 유입됐던 5천여t의 쓰레기를 전량 수거했다고 19일 밝혔

다. 영산강 하류에는 그동안 전남지역 곳곳에 쏟아진 큰 비로 인해 상류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강 하류에 있는

목포 육양동 카누경기장과 무안 일로를 주릉나루터, 남창천에 이르는 약 10km 구간까지 5천여 t에 달하는 쓰레기가 밀려와 넘쳐났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영산강의 수질 오염 방지와 생태계 교란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와 한국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14일부터 인력 1천400명, 기계차·굴삭기 43대, 청소차 16대, 선박 12척 등을 동원해 쓰레기 처리를 완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징역 10년형 상해치사 피고인

“직접증거 없다” 항소심서 무죄

광주고법 선고

지난해 6월 신안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사망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직접 증거가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19일 40대 여성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문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간접 사실과 정황증거로 미뤄 문씨가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짙어 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범행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죄의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을 유죄로 인정할 원심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지난해 6월 11일 새벽 신안군 한 주점에서 나와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 정모(여·46)씨를 뒤따라가

목에 상처를 입히고 선착장 인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문씨가 피해자 정씨를 뒤따라갔다는 증언 ▲정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인근 연도교 부근에서 끊긴 점 ▲문씨가 사건 이후 도피생활에 들어간 점 등을 들어 문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인신 구속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직접증거는 없지만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증거를 감안해볼 때 혐의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종합적 증명력’을 지니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문씨의 신체와 주거지, 차량 등에서 아무런 범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정씨가 반드시 다리 부근에서 변을 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문씨를 살인범으로 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형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참 (7859) 김장두



급류 실종 초등생 끝내 숨져

지난 15일 광주시 광산구 황룡강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던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광주광산소방서에 따르면 119구조대는 전날 오전 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황룡강 수초 더미에서 초등학생 허모(9)양을 발견했다. 허양은 지난 15일 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연계마을 세월교에서 가족과 함께 놀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취직시켜주겠다” 술먹여 성폭행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피어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20대 경찰서원.

○광주남부경찰청은 19일 모 케이 블 방송국에 근무하는 A(25)씨를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새벽 2시에 광주시 백운동 한 호텔에서 B(여·20)씨를 이불로 덮어씌운 뒤 성폭행한 혐의.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서 울생활을 접고 내려온 B씨에게 “취직에 도움을 주겠다. 술이나 한 잔 하자”며 불러내 소주 3병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인근 모텔로 데려가 뒀던 것.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절도 숨기려 동거녀 살해 시도

나주경찰, 50대 영장

나주경찰은 18일 통장의 돈을 몰래 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이모(53)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에 나주시 자신의 집 개사육장에서 사료를 주던 동거녀 A(여·55)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1~2월 5차례에 걸쳐 A씨의 연금통장에서 현금 280만원을 몰래 인출해 사용한 뒤 A씨가 이 사실을 알아챌까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씨가 내리친 벽돌에 머리를 맞은 직후 곧바로 의식을 되찾았으며, 이씨에게 다친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괜찮으나”고 높은 것을 의심해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베트남서 송환된

금은방 강도 구속

3억원대 금은방 폐강도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남부경찰은 19일 최근 베트남에서 송환된 일당 권모(50)씨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권씨가 소지하고 있던 800만원 상당의 외화도 압수했다.

경찰조사결과 권씨 등은 사건 직후 귀금속을 2등분해 처분했으며, 권씨는 자신의 뒤편 2천900만원을 가지고 지난 5월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투자금 3억여원 탕진

동부경찰, 50대 구속

광주동부경찰은 19일 손실에 대한 설명없이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끌어 모아 모두 탕진한 정모(50·광주시 서구 풍암동)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5년 9월께 ‘주식투자’로 돈을 벌어들였다며 전모(53)씨 등 3명으로부터 3억7천만원을 넘겨받아 2년 만에 돈을 모두 잃고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SONY

VAIO STYLE 세련된 디자인, 탁월한 성능

My Style My VAIO

문의처: 1577-9100

www.sony.com

사교육비 부담을 위한 확실한 대책!!!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http://edu.ingang.go.kr

3만원의 행복

강남구외 우수형 교육인력자를 채용할 기회

연회비 3만원에 7,500강의 무료 수강

- 전문강사(박학박수, 명문대출신 등) 특강과 교육
- 전문강사 1인 1강실 체험수업 3400강 수강
- 최강의강사특강, '영어강화', '영어회화'
- 무료 내신, 모의고사, 1차시험, 2차시험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명문대 특강

☎ 1577-9100